

New ETF Insight Vol. 30

2024년 2분기 ETF 포트폴리오

ETF 마케팅 김수정

Contents

Summary	2
2024 년 ETF 를 담기 전 알아야 할 정보	3
2024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생각해볼 ETF	8
2024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생각해볼 ETF – 월배당	9
2024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생각해볼 ETF – 주식형	10
2024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생각해볼 ETF – 채권형	16
2024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생각해볼 ETF – 현금성 자산	17

Summary

2024년 1분기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 되었다. 2024년 2분기 역시 1분기의 연장 선상일 것으로 보인다.

3월 FOMC에서 연준의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연간 금리인하 횟수 3회를 유지했다.

2분기에도 시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들의 방향성, 시장 예측을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6월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동결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울통불통하게 완화될 것이라 이야기했던 만큼 변동성은 미국 대선 상황과 더불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ETF들을 되도록이면 편입하되 미국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AI 수혜가 기대되는 혁신 성장 테마형 ETF를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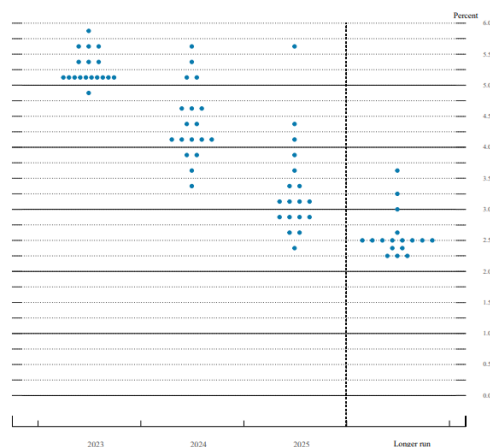
New ETF Insight

2024년 2분기를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

2024년 2분기를 맞이하며 다시 업데이트 된 상황들을 점검해보자.

일단 3월 FOMC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시장은 3월 FOMC가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3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작년 12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0.75bp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부분을 3월에도 유지했다. 물론 인하 시기가 이르면 안된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어느 시점부터 긴축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3월 FOMC, 1월과 비슷한 내용



자료 :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March 20, 2024"

그럼에도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2024년 2분기에도 시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들의 방향성, 시장 예측을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6월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동결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울통불통하게 완화될 것이라 이야기했던 만큼 변동성은 미국 대선 상황과 더불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ETF들을 되도록이면 편입하되 미국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AI 수혜가 기대되는 혁신 성장 테마형 ETF를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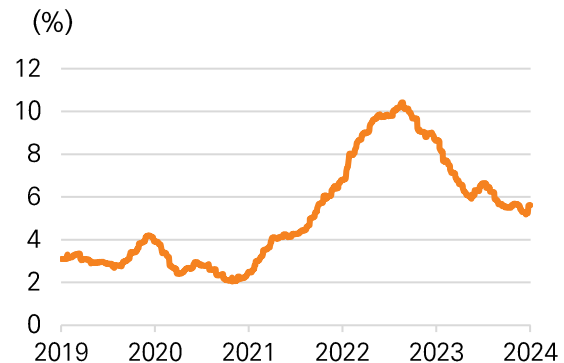
시장은 미국 생산자물가와 장기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연준이 금리 동결 기간을 대폭 늘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연준은 그러지 않았다. 사실 1월 30일 IMF에서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중이다. 제목부터 Moderating Inflation and Steady Growth Open Path to Soft landing 으로 2024년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경제가 회복해 전세계적으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IMF에서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 : IMF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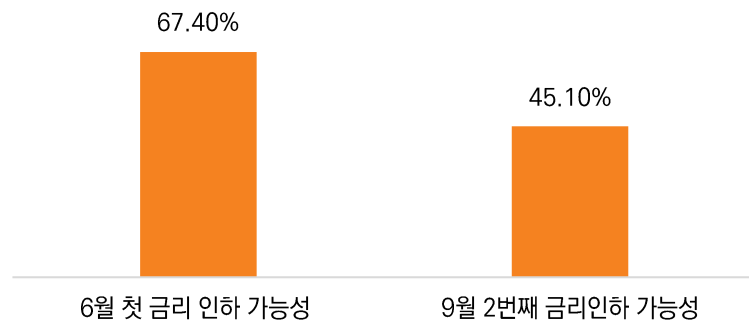
물론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계속 미국 연준을 압박하고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0금리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전세계적으로 10%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완화되는 중이다.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뿐이다. 고로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중이다. 2024년 3월 21일 기준으로 6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7.4%다. 올해 6월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가능성은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 다만

9월 한 차례 더 금리인하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45.1%다.

6월에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은 주류로 자리 잡았으나 9월에 한차례 더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은 45.1%에 불과하다. 그 말은 일단 금리 인하는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는 것은 맞으나 그 속도는 시장이 바라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갑론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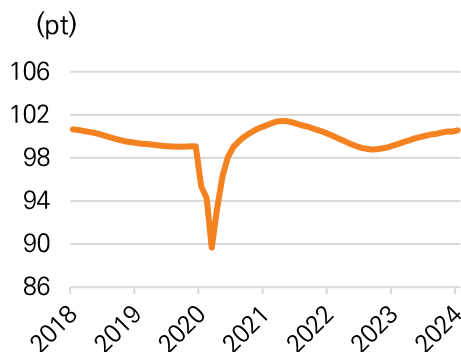


자료 : CME FedWatch Tool

*기준일: 2024.0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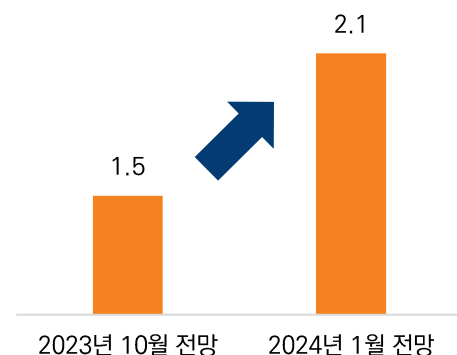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금리를 지금 당장 딱딱 인하하면 투자자 입장에서선 즐겁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선 글로벌 경기가 나아지는게 좋다.

G20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 Bloomberg

미국 2024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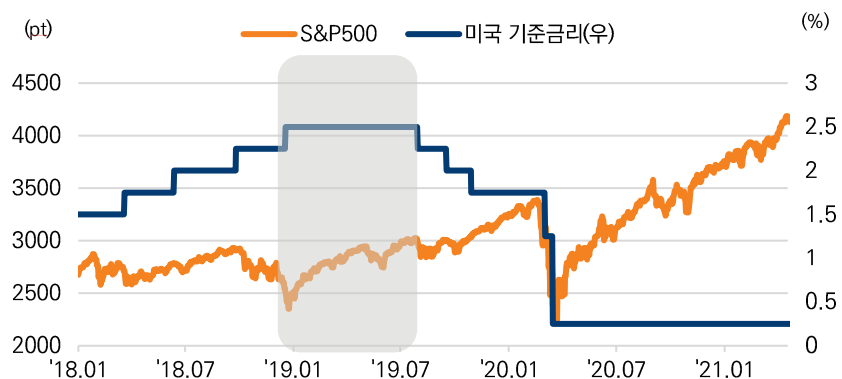
자료 : IMF, 미래에셋자산운용

G20 국가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작년 여름 이후 꾸준히 100pt를 넘고 있다. 근래에는 더 반등하는 모양인 만큼 경제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자료를 통해 특히 미국과 주요 신흥국들의 성장세를 근거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만큼 미국의 경제는 튼튼할 것이다. 경제가 회복해야 설비,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투자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증시가 흔들릴 때 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경제가 좋아야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장성을 근거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에겐 실물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2019년 예시를 보면 금리가 동결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투자를 활발하게 할 시기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처럼 시열풍이 불지 않았던 2019년,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해였다.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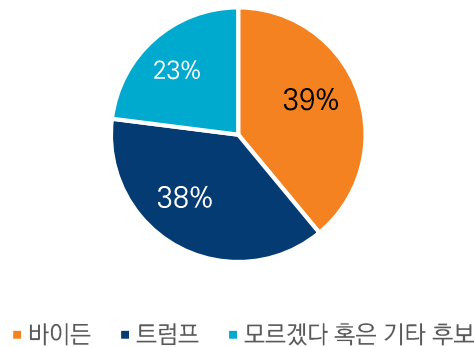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다만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입장 변화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2024년 1분기 동안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로 확정되었고 3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에게 출마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에 드리웠던 구름이 모두 걷혔다. 3월 14일 Reuters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호도 조사 차이는 1%밖에 되지 않는다. 박빙이라는 의미로 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이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이든과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대척점에 위치해 있어 추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도



자료 : Reuters

*기준일: 2024/03/14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올해 1분기에는 색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2024년 2월 국내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아 주가도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짧은 기간 동안 기대와 실망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정부도 해당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언급한 만큼 투자자입장에서는 수혜주를 찾아볼 시기다.

2024년 2분기를 앞두고 앞서 언급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아볼 ETF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선과 인플레이션 경로에 따라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2.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것은 팩트인만큼 성장주들에 대한 포지션도 가져가자
3. 하지만 아쉽게도 역사적인 고금리 환경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분기, 생각해볼 ETF

2024년 2분기, 이런 ETF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구분	ETF		비고
월배당	국내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대표 저PBR 섹터인 은행과 증권주에 투자하면서 고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ETF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법인 개정으로 늘어날 배당, 금리가 하락하면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회복이 기대되는 ETF
	해외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월배당 ETF 중 커버드콜 전략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변동성을 축소하고 지수 상승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월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주식	국내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금리 동결기가 길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AI 수혜 ETF
		TIGER Fn반도체Top10ETF	
	해외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TIGER 글로벌 AI 액티브 ETF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채권	국내	TIGER 25~10 회사채(A+ 이상) 액티브 ETF	'금리 인하는 하지만 신중하고 느리게' 상황과 어울리는 채권 ETF
	해외	TIGER 미국30년 국채프리미엄액티브 ETF	
현금성 자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변동성이 높은 시기 저축형 ETF

자료 : Reuters

*기준일: 2024/03/14

월배당 ETF도 다양하게

이번 분기에는 월배당 ETF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국내와 해외 월배당 ETF를 모두 가져와봤는데, 국내 월배당 ETF들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해외 주식을 담는 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와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분배금을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고, 대신에 지수의 성장성을 모두 따라가지는 못한다.

1.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2분기 국내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언급될 키워드는 저 PBR이다. 장기간 낮은 밸류에이션에 시달리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다. 올해 1월 그래서 낮은 PBR을 가진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등 섹터가 이전과는 달라진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금융, 가치, 배당, 지주 키워드로 뽑아보면 약 14개의 ETF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분 PBR도 국내 증시 10년 평균치인 1.0배와 큰 차이가 없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ETF로의 자격은 있다. 그런데 14개 ETF를 모두 투자할 수는 없으니 저PBR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월배당을 기대해볼 수 있는 ETF로는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ETF가 매력적이다.

저PBR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ETF 리스트

구분	이름	PBR(배)	구분	이름	PBR(배)
금융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0.45	지주	TIGER 지주회사	0.76
금융	TIGER 은행	0.72	지주	TIGER 로우볼	0.77
금융	TIGER 200금융	0.78	지주	TIGER 현대차그룹+편더멘탈	0.79
금융	TIGER 증권	0.88	지주	TIGER LG그룹+편더멘탈	0.87
배당	TIGER 코스피고배당	0.54	지주	TIGER 삼성그룹편더멘탈	1.29
배당	TIGER 배당성장	0.93	가치	TIGER 우량가치	0.50
배당	TIGER 배당프리미엄액티브	1.11			
배당	TIGER MKF배당귀족	1.16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4.02.23

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PBR이 0.45배로 상당히 낮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낮은 PBR로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1월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금융주였다. 금융주, 은행, 보험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시장을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ETF는 하나금융지주, KB 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삼성생명까지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다. 여기에 꾸준한 월배당금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월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ETF다.

2.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국내 리츠들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이익배당한도는 그해 이익을 말하는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제한 금액이다. 원래 리츠의 투자자산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줄어들어 이익배당한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배당금액이 작아지니 법인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4년 1월 26일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제 리츠의 배당한도에서 기초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국내 리츠들은 현금이 있어도 평가손실만큼 배당액을 줄였어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국내 리츠들의 배당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높아지는 배당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금 자체가 높아져서 배당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기, 그리고 동결기에 리츠가 힘들었던 이유는 리파이낸싱이 어려워 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내 리츠들은 다시 리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리츠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담보 대출이고, 두 번째는 회사채 발행이다. 담보 대출보다는 차입구조 안정화 차원에서 회사채가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작년까지 금리가 너무 높아 리츠들 입장에서 대출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이젠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인하되는 수순을 밟고 있으니 국내 리츠들이 이전 대비 조금 편안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 중이다.

3.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미국배당다우존스(SCHD)지수를 추종하면서 옵션 비중을 40% 내외로 설정해 프리미엄 수익을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대비 높게 타깃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지수 성장 여력도 가지고 간다. 당연히 추종하는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추가적인 월분배 재원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인기 물이를 하는 월배당 ETF다.

4. TIGER 미국테크 Top10+10%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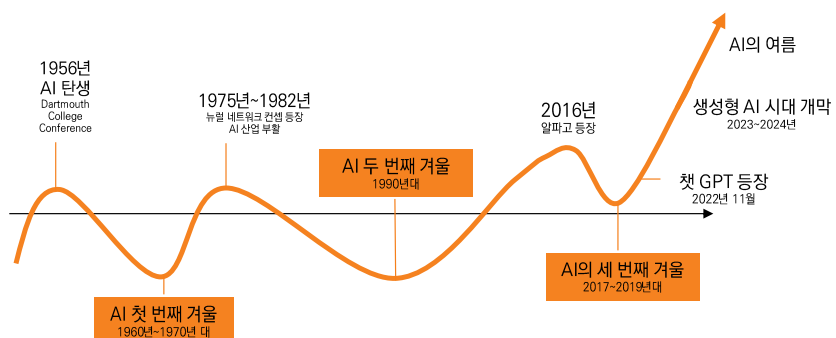
202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 상승의 주역인 미국 테크 Top10 기업들에 투자해 압도적인 그들의 성장성을 누리면서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40% 내외로 사용해 월배당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다.

대 AI시대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이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AI다. AI 산업은 버블일까? AI 산업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ETF들을 봐야할까?

이제 AI 산업은 봄을 넘어 처음으로 뜨거운 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다. AI 시장의 확대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퉀 AI 기술을 출시하고 투자했다고 밝히는 중이지 않을까? AI 시장은 아주 길고 뜨거운 여름으로 가고 있다.

AI의 역사 겨울과 봄, 그리고 앞으로 기대될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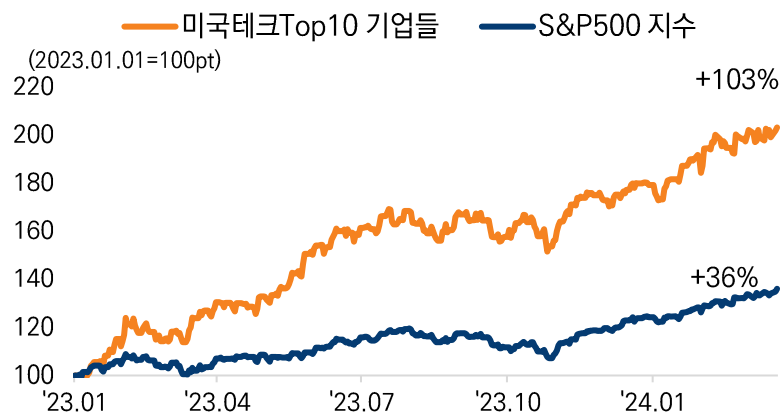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BrightworkResearch

1.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AI가 뜨거운 여름으로 가면, 가장 수혜를 받을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테크 TOP 10 기업들은 작년에만 79% 상승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15% 상승했다. 미국 증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끌어올린 주역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금리 인하기로 가고있는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를 놓치기엔 아깝다.

2023년부터 이어진 미국 테크 Top10기업들의 약진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수익률은 자산 상승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3.01.01~2024.03.20

그리고 미국 테크Top10 기업들은 AI 열풍을 몰고온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미국 테크 Top 10 기업들과 AI 기술 연관성

기업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AI와의 연관성
Microsoft	오픈 AI 수익의 70%를 가져가는 동시에 MS 오피스 copilot을 출시, AI 기술 강자의 면모를 보여줌
Apple	회사 내부적으로 애플 Chat GPT를 선보였다는 이야기가 돌리는 등 애플의 하드웨어에 AI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 중
Alphabet	AI 기술의 시조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AI 기술 연구를 진행해옴. Bard를 필두로 남다른 AI 기술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중
Amazon.com	생성형 AI 알렉사를 공개하며 E Commerce와 AI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
NVIDIA	AI 용 GPU 설계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
Meta Platforms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앱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 증진에 성공, AI 언어 모델 공개 예정
Tesla	Dojo 슈퍼 컴퓨터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및 자동차에 AI를 접목시킬 것으로 기대됨
Broadcom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실리콘, 이더넷 스위치, 패브릭을 생산
Cisco Systems	클라우드 산업에 필요한 이더넷 시장에서 AI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Adobe	포토샵, 일러스트, Firefly 등 콘텐츠 제작 제품에 AI 기술을 통합하며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2.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AI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은 미국테크Top10 기업들이지만 2분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AI 반도체다. AI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1)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2)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사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다. 꼭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가지를 언제 어디서나 잘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성되어야 할 데이터 센터들의 변혁을 꾀해야 한다. 때문에 AI 반도체 칩으로 대변되는 AI 하드웨어가 각광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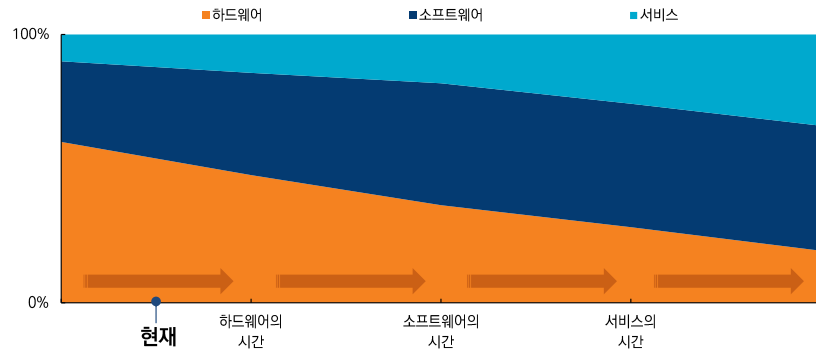
그래서 엔비디아의 2023년 4분기 매출이 전년비 265% 늘어난 것이고 AMD는 2023년 하반기 MI300을 출시해 2024년 매출액을 20억 달러로 전망하며 회사의 자체적인 가이드를 상향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물량을 대부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TSMC도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기에 탑재되어 AI 연산만을 담당하는 온디아이스 반도체 칩(NPU: Neural Processing Unit)도 등장한 것이다.

대 AI시대가 되기 위해서 미리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고 이런 수혜는 일단 가장 처음 미국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 전용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엔비디아부터 TSMC, AMD, ASML, 인텔 등 미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SOX 지수에 투자한다.

3. TIGER 글로벌 AI 액티브 ETF

AI 산업은 어떻게 전개될까?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하다는 듯이 침투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고 그만큼 AI 시장의 성장성도 크다. 일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AI 반도체를 통한 하드웨어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I 산업은 실시간으로 겪다 보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다. 2022년 챗 GPT가 처음 나왔던 때를 생각해보면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AI는 사회, 경제, 그리고 모든 기업들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발빠르게 접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AI 산업 변화의 방향성



자료 : Timo D. Muller et al., 2022

지금처럼 AI 반도체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가 지나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서비스 기업들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미 AI 수혜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MS Office 소프트웨어에 AI를 접목한 Copilot이 가장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I 서비스는 이 외에도 세일즈포스 혹은 서비스 나우에서 제공하는 AI 소프트웨어들도 예시라고 할 수 있다. AI 서비스로는 만약에 내가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할 생성형 AI를 통해 구매부터 결제까지 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와 AI 서비스 신제품을 출시하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으로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액티브 ETF다 보니 편입편출이 자유로워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의 주인공이 바뀔 때마다 구성 종목과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4. TIGER Fn반도체Top10 &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불기 마련이다. GPU를 엔비디아에서 디자인하고 주문을 TSMC한테 준다고 끝난게 아니다. AI 전용 GPU를 감당할 수 있는 HBM(고대역폭메모리)가 있어야 AI 연산에 걸맞는 AI 반도체 칩이 완성된다. HBM은 이름 그대로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다. 메모리 대역폭은 일정한 시간 내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량을 의미하는데, 이 대역폭이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의 양을 더 빠르게 전송 가능하다.

현재 Trendforce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AI 메모리 반도체, 즉 HBM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국내 기업들이 압도적이다. SK 하이닉스가 약 48%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는 43%를 차지한다. HBM 확보를 위한 미국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동력 HBM

몸값 뛰는 HBM, '프리미엄' 500%까지 치솟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성 개선 기대

HBM 가격, 역대 최고가 경신 중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에 인텔, AMD도 주문 거세
"AI 메모리로 HBM 대세 굳어졌다"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HBM 진검승부... "내년 주문 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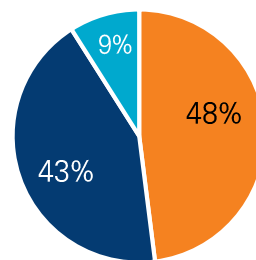
삼성·SK 내년 HBM3E 양산 시작... 후발주자 마이크론도 도전장
반도체 · 다스올에이 | 일락 2023/11/02 09:14 | 수정 2023/11/02 16:54

기업과산업 전자·전자·정보통신

AI 열풍에 HBM도 고속성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년까지 '완판' 전망

김태영 기자 web@businesspost.co.kr | 2024-02-22 14:29:45

전세계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 SK 하이닉스 ■ 삼성전자 ■ 마이크론

자료 : 조선비즈, 지디넷코리아, 비즈니스 포스트

자료 : TrendForce,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3년 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을 각각 최대 25%씩 가지고 갈 수 있어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두 종목에 집중투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 8종목을 포함해 한 번에 투자해 AI 전용 메모리반도체로 자리잡은 HBM의 수혜주 중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싶다면 TIGER Fn반도체Top10 ETF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HBM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관심을 받았다. HBM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AI 반도체 중소형주 ETF로는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가 있다. HBM의 공정에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HPSP 등 기업들에 투자한다. AI 시대의 도래 → AI 반도체 수요 증가 → AI 메모리 반도체 (HBM) 수요 증가 → AI 핵심공정 기업들 수혜 증가의 스토리로 국내 반도체 시장까지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성에 기인한 주가 등락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에 흔들릴 수 있으나 2024년 2분기에도 국내 대표 혁신 성장 ETF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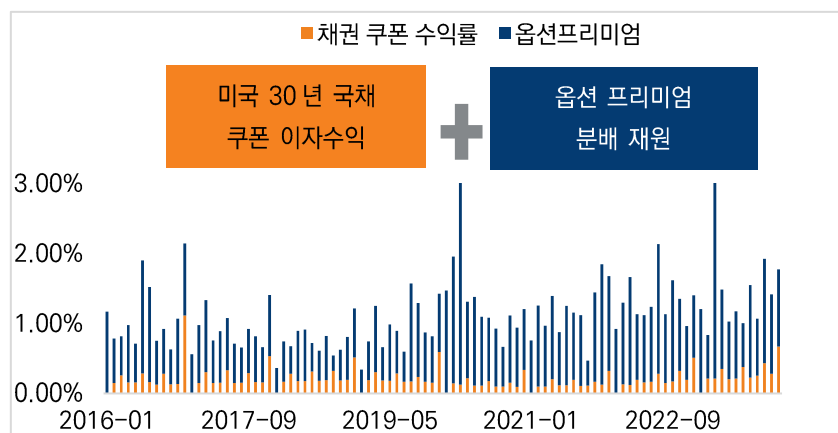
채권 ETF는 기다림의 미학

현재 경제 상황과 시황을 정리할 때 알아봤지만 미국 장기채 수익률은 연준이 금리 동결 구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지는 않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미국 장기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기다리는 동안 금리 등락에 마음이 싱숭생숭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완전히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오랜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변동성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1.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 액티브 ETF

그렇다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면서 변동성은 조금 작고, 기다리는 동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는 없을까?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 ETF가 좋은 예시다. TIGER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ETF(H)는 매주 1회 이상 ATM 옵션을 30% 이내로 매도한다. 만기가 짧은 주간 단위 콜옵션은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가 만기가 긴 옵션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매도를 하더라도 월분배 재원으로 필요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지수는 70% 정도 따라가 금리가 떨어질 때 미국채30년물의 가격 상승분을 모두 누릴 수는 없지만 분배금 재원으로 미국 30년국채가 가지고 있는 이자 수익에 더해 콜 옵션 프리미엄까지 사용한다.

분배금 자원 : 채권의 쿠폰 이자수익 + 옵션 프리미엄



자료 : Bloomberg,

* 위클리 매도 전략은 매월 발생하는 프리미엄 합계 평균

*기간: 2016.01~2023.12

2016년부터 1) 미국 30년 국채 쿠폰 이자수익과 2) 옵션 프리미엄 평균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월배당 ETF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금 계좌에서 미국채 30년 ETF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TIGER 미국30년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H)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미국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면서 미국30년 국채에 투자하는 동시에 월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2. TIGER 25-10 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

우선 만기 채권형 ETF는 상장 당일 청산 가격이 대략적으로 정해진다. 상장 당일 YTM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 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만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장 당일 2년 만기 채권 ETF의 가격이 5만원이고 상장 당일의 YTM이 6% 라면 만기까지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5만(원금) + 6천원(이자 수익)이다. 매일 만기 매칭 채권형 ETF의 가격은 상장 당일 정해지는 청산 금액을 향해 달린다.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경우 2023년 03월 23일 5만원에 상장했고 2024년 3월 20일 기준 가격이 52,397.38원이다.

물론 시장 금리가 변하면서 가격 추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할 수도, 완만하게 변할 수 도 있다. 청산 금액을 목표로 꾸준히 향해하지만 그 기울기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중도에 저가 매수,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고금리 환경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TIGER 25-10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의 연환산 YTM은 3.80%다. (기준일 : 2024.03.27) 내가 2024년 3월 27일 투자를 한다면 기대해볼 수 있는 채권의 이자수익이다. 금리인하기를 앞에 두고 있더라도 안정적인 자산의 대표주자인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에도 비중을 가지고 가보자.

현금성 자산, 매일 이자가 붙는 저축형 ETF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일정부분 가지고 가고 싶은 투자자라면 생각해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 지면 예금, 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주식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 예금 상품에 은행에서 가입하기 위해선 조건들이 복잡하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월급을 받는 계좌를 지정해야 하기도 하고 주 거래은행으로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적금, 예금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ETF를 활용한다면 현금성 자산에 주식에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 가격에 매일 이자가 쌓이는 구조로 안정적인 상품이다. 'CD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출시된 CD91일, KOFR금리 추종 ETF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CD 1년 vs CD 91일 vs KOFR 3년 평균 금리

구분	과거 평균 금리	CD1년물 금리와 차이
CD1년물	2.16%	-
CD91일물	1.88%	-0.28%
KOFR 금리	1.68%	-0.48%

자료 : 인포맥스, 미래에셋자산운용

*최근 3년간 평균치 * 기준일: 2024.01.02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준도 금리 동결 기간을 예상했던 것보다 길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럼 금리가 하락하면 안좋은 걸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내일 CD 1년 금리가 3.70%에서 3.65%로 하락한다고 해도 ETF 가격 상승폭이 전일 대비 줄어드는 것이지 ETF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전세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회 인하하더라도 3%

내외의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내 현금이 그냥 불어나는 법은 없다. 현금성 ETF를 활용해 작지만 안정적으로 매일 이자를 누려보자.

상품 개요

구분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종목코드	A458760
최초상장일	2023년 06월 20일
기초지수	Dow Jones U.S. Dividend 100 7% Premium Covered Call 지수 (TR)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39% (집합투자업자: 0.34%, 지정참가: 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종목코드	A474220
최초상장일	2024년 01월 16일
비교지수	Bloomberg U.S. Tech Top10+10% Premium Covered Call 지수(원화환산)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5% (집합투자업자: 0.449%, 지정참가: 0.001%, 신탁: 0.0025%, 일반사무: 0.0025%,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종목코드	A466940
최초상장일	2023년 10월 17일
기초지수	FnGuide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지수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3% (집합투자업자: 0.27%, 지정참가: 0.01%, 신탁: 0.01%, 기타: 0.01%,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종목코드	A329200
최초상장일	2019년 07 월 19일
비교지수	FnGuide 리츠부동산인프라 지수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53% (집합투자업자: 0.054%, 지정참가: 0.001%, 신탁 : 0.015%,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직전 회계 기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

구분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종목코드	A471760
최초상장일	2023년 11월 21일
비교지수	iSelect AI반도체핵심공정 지수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총보수	연 0.45% (집합투자업자: 0.4%, 지정참가: 0.01%, 신탁 :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 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Fn반도체 Top 10 ETF
종목코드	A396500
최초상장일	2021년 08월 10일
기초지수	FnGuide 반도체 Top 10 지수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51% (집합투자업자: 0.4%, 지정참가: 0.01%, 신탁 :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0.06%)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직전 회계 기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4%

구분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종목코드	A381180
최초상장일	2021년 04 월 09일
기초 지수	Indxx US Tech Top 10 지수 (PR) (원화환산)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69% (집합투자업자: 0.42%, 지정참가: 0.02%, 신탁 : 0.025%, 일반사무: 0.025%, 기타비용: 0.2%)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직전 회계 기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9%

구분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ETF
종목코드	A381170
최초상장일	2021년 04 월 09일
비교지수	Indxx US Tech Top 10 지수 (PR) (원화환산)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6% (집합투자업자: 0.42%, 지정참가: 0.02%, 신탁 : 0.025%, 일반사무: 0.025%, 기타비용: 0.11%)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직전 회계 기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

구분	TIGER 글로벌 AI 액티브 ETF
종목코드	A466950
최초상장일	2023년 10월 11일
비교지수	Indxx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지수(Net Total Return)(원화환산)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79% (집합투자업자: 0.73%, 지정참가: 0.01%, 신탁 : 0.03%,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 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25-10 회사채 (A+이상) 액티브 ETF
종목코드	A453540
최초상장일	2023년 03월 23일
비교지수	KIS회사채 2510 만기형지수(TR)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총보수	연 0.1% (집합투자업자: 0.085%, 지정참가: 0.005%, 신탁 : 0.005%, 일반사무: 0.005%,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 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 ETF
종목코드	A476550
최초상장일	2024년 02 월 27일
비교지수	KEDI US Treasury 30Y Weekly Covered Call 30 Index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합성 총보수	연 0.39% (집합투자업자: 0.349%, 지정참가: 0.001%, 신탁 :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 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구분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합성) ETF
종목코드	A475630
최초상장일	2024년 02월 06일
비교지수	KIS CD 1년 지수 (총수익지수)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총보수	연 0.05% (집합투자업자: 0.039%, 지정참가: 0.001%, 신탁 : 0.005%, 일반사무: 0.005%,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과세내용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위 상품은 상장 1 년 미만 상품으로 총보수(연) 기재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액티브 ETF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되는 액티브 ETF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드콜 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변동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등을 분배 재원으로 하여 매월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콜옵션 매도 투자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콜옵션 매도 이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배 재원의 감소로 의도했던 수익구조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콜옵션 매도 시 수취하는 옵션 프리미엄 등을 분배 재원으로 하여 매월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 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발생한 분배 재원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매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배금은 분배 자원 상황 등 기타 사유에 따라 매월 지급 방식에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 재원을 매월 분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지수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는 성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투자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의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0169 호 (2024.03.29~2025.03.28)